

기술철학의 새로운 흐름

비관주의를 넘어서...

글 | 손화철 _ 부산대 박사후과정 whachuls@hotmail.com

지난 글에서는 현대기술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한 철학자들을 소개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비관주의를 기술에 대한 거부나 감상적인 낭만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현대기술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에서 비롯되었거나 대안 없는 우려만 쏟아놓았다는 비판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비관주의는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에서 나온 것이지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현대기술이 무한한 행복과 건강만을 인류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의 통찰에서 취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다행히 기술철학의 2세대는 이러한 건설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한편으로는 하이데거와 엘릴, 마르크제와 같은 소위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의 기술사회 비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서도,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랭던 위너, 앤드루 핀버그, 윌렘 반더버그, 칼 미첨 등과 같은 학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

위너와 핀버그, '기술발전의 민주화' 주장

위너와 핀버그는 각각 서로 다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한다. 위너는 메모드가 주장한 것과 같이 민주적인 기술과 권위주의적 기술이 있다고 보고, 민주적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기술발전이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과학기술과 그 산물인 인공물들을 중립적 도구로만 보아서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너는 이러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기술 개발을 입법에 비유한다. 즉, 법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 삶을 규제하듯이 기술도

일단 개발이 되고 나면 인간과 사회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보다 민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엘릴의 개념을 빌려 '자율적 기술'이라는 책을 썼지만, 정작 그 책에서 기술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표류하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핀버그의 기술 민주화 주장은 기술의 사회적 구성 이론을 그 근거로 삼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 방향은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 기술발전의 초기 단계에는 그 기술을 어디에 쓸 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해석들은 하나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특정 입장이 선택되는 것은 효율성과 같은 기준이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우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기술발전은 여전히 인간의 영향력하에 있을 뿐 아니라 무조건적인 효율성의 추구와 같은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우연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

핀버그는 이 암묵적인 관련사회집단의 합의를 보다 명시적인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기술발전은 더 이상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아닌 그 기술을 사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사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기술의 민주화는 개별기술들의 디자인 자체에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녹아들어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5층 정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추가 비용이 드는 부가적인 일로 생각했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의식이 생긴 지금은 건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로 여겨진다. 이런 종류의 민주화는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일단 기술코드로 정착되고 나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다.

지속가능한 공학발전을 위한 반더버그의 노력

반더버그는 캐나다에서 공학을 공부하던 중 엘렐의 책을 읽고 충격을 받고,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프랑스로 가서 엘렐 밑에서 사사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엘렐의 기술사회 비판과 자율적 기술의 개념이 현실과 들어맞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토론토 대학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센터 소장으로 공학도들을 가르치면서 엘렐의 통찰을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엘렐의 비판에 그대로 머무르는 대신 그 비판을 완전히 수용하면서도 현대기술사회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보다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반더버그의 시도다.

그의 제안 중 하나는 '기술의 경제학'이 아닌 '기술의 생태학'을 지향하는 것이다. 기술의 경제학은 오늘날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다. 이 때 후자의 문제해결은 전자와 무관한 독립적인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이해된다. 반면 기술의 생태학은 신기술 개발 이전에 그 개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을 가능한 한 미리 예측하여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기술 개발의 속도는 늦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예방적 공학'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미침은 고전적 기술철학의 시대가 끝난 1970년대 말엽부터 사실상 기술철학계를 이끌어온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기술철학 내의 모든 이론과 입장들을 서로 연결 짓고 정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그는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이 제기한 현대기술사회에 대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기술철학자들이 공학자들과 좀 더 빈번하게 만

나서 한편으로는 공학을 깊이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적 통찰을 나누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어진다. 2007년 10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열린 워크숍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미국과 유럽의 공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만나 공학윤리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논의하였다.

대안들은 현실적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과연 현실적인가?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의 비판적 견해가 기술사회의 현실을 과장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과 같이, 기술철학 내부에서 제기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의 현실성만이 그 정당성이나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극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동원해야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대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의 세계를 상정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 상황이다. 기술철학의 논의들은 과학자, 공학자를 방해하고 괴롭히거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지적 유희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술철학의 여러 이론과 제안들은 과학기술인들과 철학자들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승화될 때야 그 진정한 가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